

다산포럼

새 날은 언제 어떻게 오는가



김정남 언론인

아마 1980년대 어느 해였을 것이다. 하루는 해외로 급히 나가야 했던 김수환 추기경이 나를 불러 말씀하시기를 글 빛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당신이 나가있는 동안 대필해달라는 것이었다. 추기경은 부탁과 함께 그 글에 담을 내용을 자상하게 일러주셨다. 나는 다만 그 말씀을 정리만 하면 되었다. 그때 들려주신 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옛날 인도에 어떤 성자가 있었다. 그에게는 따르는 제자들이 많았는데 언젠가 그 제자들을 모두 불러모아 놓고 이렇게 물었다. “너희들은 새 날이 온 것을 어떻게 아느냐.” 이에 대해 한 제자는 “저 멀리 먼동이 터서 동창이 밝아오는 것을 보고 새 날이 온 것을 알지요”라고 답했고, 어떤 제자는 “사람들이 그 형체를 드러내어 산천과 초목이 보이기

시작하면 새 날이 밝아온 것을 압니다”라고 했다. 또 어떤 제자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발자국 소리와 두런두런 사람들의 말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으로 새 날이 온 것을 알게 되지요”라고 답했다.

스승은 그것을 묵묵히 듣고 나서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아니다”라는 한마디만 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렇다면 선생님께서야 밤이 가고 새 날이 온 것을 어떻게 아신단 말입니까”라고 따지듯 물었다. 스승은 이렇게 말했다. “날이 밝아 너희들이 밖을 내다보았을 때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모두 너희 형제들로 보이면, 그때 비로소 새 날이 온 것이니라”

지나가는 모든 사람, 우리의 이웃들이 모두 다 형제로 보일 때, 질서와 미혹으로 가득한 내 마음이 변해서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었을 때 새 날이 온 것을 안는 것이다. 내 이웃과 주변의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을 내 형제들의 그것으로 느낄 수 있을 때 새 날은 비로소 우리 앞에 온다는 것이다.

새해가 밝았다. 그러나 나는 새해가 오는 것이 웬지 두렵기만 했다. 내 어릴적 어머니는 설날 그믐날 잠을 자면 그 사이에 눈썹이 하얗게 샌다고 잠을 못 자게 하셨다. 하지만 내가 새해가 오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은 나 이 한 살 더 먹는다는 것 때문은 아니었다.

알다시피 갑오(甲午)년은 우리 역사에서 파사롭게 기억되는 해는 결코 아니다. 120년 전, 1894년 갑오년은 동학농민운동으로 시작해서 청일전쟁으로 끝난 해였다. 갑오년은 아니지만 100년 전인 1914년에는 1000만명이 목숨을 잃은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해였다.

거기다 중국의 굴기, 일본의 경직성 우경화, 어디로 필지 모르는 북한 사태 등 오늘날 대한민국이 처한 동북아의 국제 정치환경은 그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것이 없이, 대한제국의 말년을 방불케 하고 있다.

안으로 세상은 또 얼마나 살벌한가. 염려했던 철도과업이 22일만에 일단 멈추어선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법과 원칙’을 내세우는 분위기가 또 무슨 사태를 불러올지 몰라 조마조마하기 짝이 없다.

이런 가운데 ‘안녕들 하십니까’라는 말이 대학가를 넘어 이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다. 이를 석자 내걸고 대학생들이 붙인 대자보에는 그동안 삶에 찌들고 스펀지에게만 몰두해 사회적 이슈나 이웃의 고난에 무관심했던 자신들을 반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런 것들을 더는 차마 외면할 수 없다는 배려와 연민을 담고 있어 감동적이라까지 하다. 아

무래도 그 물음은 2014년에도 화자될 것 같은 예감을 갖게 한다.

2012년 대선 때 여야간에 내세웠던 정치 대타령이니, 경제민주화니, 국민대통합이니 하던 소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들어가 버린 지 오래다. 갑(甲)이 을(乙)을 배려하고 없는 자, 잃은 자, 약한 자를 꺼안자던 예기도 지금은 오라무중이다.

어느덧 이 나라 공동체는 이념과 계층 간의 갈등에 휘말리고 있다. 언론 역시 두 패로 나누어져 이념적 대립을 부채질하고 있다. 국민 내부의 상충하는 권익을 공동선의 방향으로 조정해야 할 정부는 어느 한편으로 기울고 있는 듯한 인상을 지을 수 없다.

한해 동안 있었던 이런 미망에서 벗어나 2014년에 우리가 진정 가야 할 길은 국민 내부의 화해와 통합이다. “화해는 공동선의 화해이어야 하며, 독선에 반대하고 관용을 베풀 줄 아는 이량이여야 하며, 전횡을 일삼아 온 강자가 억압에 찌들든 약자에게 먼저 청해와야 하는 것이다(지학상 주교의 옥중편지)”

지나가는 사람들이 현재로 보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같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수는 진정 없는 것일까. 진짜 새해는 우리 모두가 국민 내부의 화해와 통합을 위해 다룬 한쪽을 끌어안을 때 비로소 찾아올 것이다.

양동욱의 S스토리

외도에 대한 질투



성교육전문가·심리학박사

사랑하는 상대가 다른 이성에게 흠뻑 빠져버린 것을 당신이 알게 되었다. 다음 두 가지 상황 중 어느 것이 당신을 더 힘들게 할까? 하나, ‘내 상대가 다른 이성과 정서적으로 친밀한 관계인 것을 알았을 때’, 둘, ‘내 상대가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사랑하는 상대가 다른 이성에게 한눈을 팔고 있다는 것을 당신이 알게 되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활활 타오르는 질투에 치를 떨며 당신은 상대에게 달려가 따지고짜 따져 묻는다. 다음 두 가지 질문 중 당신은 어떤 질문을 할까? 하나, ‘당신 그 사람하고 잤지?’ 둘, ‘당신 그 사람 사랑하지?’

당신이 다른 이성에게 푹 빠져버렸다는 것을 상대가 눈치챘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불타오르는 질투에 휩싸여 폭발하기 직전인 상대를 진정시키기 위해 당신은 변명해야만 한다. 다음 두 가지 변명 중 당신은 어떤 변명을 할까? 하나, ‘나 그 사람이랑

안 잤어.’ 둘, ‘나 그 사람 사랑 안 해.’ 당신이 이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상상해보자. 각 상황에 제시한 두 가지 보기 중에서 하나를 꼭 선택해야만 한다면 당신은 어떤 것을 선택하겠는가?

외도는 크게 외도 상대와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성적 외도’와 정서적 애착이 형성되는 ‘정서적 외도’로 나누어지는데, 정서적 외도는 지금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성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성적 외도와 마찬가지로 연인 또는 부부 관계를 위협한다. 사랑하는 사람이 외도했을 때 그 상대는 분노, 배신, 두려움, 상처 등과 같은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는데, 이것은 두 사람의 관계의 질에 위협을 느끼는 반응으로 질투에 해당한다.

질투에 관한 연구는 진화심리학자들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인데, 위에 제시한 질문이 바로 질투의 남녀 차이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부부 관계에서 외도가 발생했을 때, 외도가 성적인지 또는 정서적인지에 따라서 그 상대 배우자가 느끼는 질투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 것이다. 그 결과는 놀랍게도 문화를 넘어 일관된 양상을 보인다.

남성의 약 65~70%는 ‘내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더 고통스러우며, 다른 이성에게 한눈을 팔고 있는 배우자에게 “당신 그 사람하고 잤지?”라고 따져 물으며, 자신이 다른 이성에게 푹 빠

져버렸다는 것을 배우자에게 들켰을 때 ‘나 그 사람 사랑 안 해’로 변명하겠다고 했다.

반면에 여성의 약 70%는 ‘내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정서적으로 친밀한 관계인 것을 알았을 때’ 더 고통스러우며, 다른 이성에게 한눈을 팔고 있는 배우자에게 “당신 그 사람 사랑하지?”라고 따져 물으며, 자신이 다른 이성에게 푹 빠져버렸다는 것을 배우자에게 들켰을 때 ‘나 그 사람이랑 안 잤어’로 변명하겠다고 했다. 여러분이 선택한 문화와 유사한가?

외도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질투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를 진화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결혼 생활에서 남성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이 시간과 경제적 에너지를 쏟아 붓고 있는 자녀가 자신의 유전 인자를 물려받은 자녀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다. 자신의 자녀가 아닌 다른 남성의 자녀에게 에너지를 투자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남성은 아내의 성적 외도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남편은 아내의 성적 외도로 인해 생판 모르는 남의 자식에게 시간과 경제적 에너지를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경계한다.

여성은 자신의 몸으로 아이를 출산하기 때문에 남성처럼 내 자식이냐 아니냐의 갈등을 겪을 필요가 없지만, 양육 과정에서 남편의 시간과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남편이 정서적 외도를 하게 되면, 가정에 쏟아야

할 에너지가 외도 상대에게 쏠려 가정을 등한시하게 되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의 정서적 외도를 경계한다. 흥미로운 점은 남편이 다른 여자와 성적 외도를 했을 때, 아내는 남편이 그 여자와 정서적으로 친밀한 관계가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을 둔다. 한 번의 육체적 관계로 끝나버리거나 금방 식어버릴 예정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남편이 다른 여자와 정서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다면, 남편은 그 여자와 이미 성관계를 했거나 현재도 하고 있으며, 만약 아직 하지 않았다면 조만간 성관계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한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정서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시에 성관계할 확률도 높다는 것으로, 남편이 현재의 가정을 외면하고 상대 여자에게 에너지를 쏟아 붓게 될 가능성 역시 커지기 때문에 여성은 남편의 정서적 외도에 민감하다.

즉 남성은 자신의 유전 인자를 전달하기 위해 아내의 성적 외도에, 여성은 자녀의 양육을 위해 남편의 정서적 외도에 강한 질투를 느낀다는 것이다. 남성과 여성은 진화 과정을 통해 이러한 특성을 발달시켜왔고, 어떤 유형의 외도가 상대 배우자를 고통스럽게 하는지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자신이 외도했을 때 배우자의 분노나 질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변명을 찾는다고 한다. 남편은 아내에게 ‘나 그 사람 사랑 안 해’, 아내는 남편에게 ‘나 그 사람이랑 안 잤어’라고.

社說

‘소통 정치’ 아쉬움 남긴 박 대통령 기자회견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통일시대 기반 구축을 위한 구상 등 집권 2년차 국정기조를 밝혔다. 하지만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특검과 관련한선 “적절치 않다”는 원칙론에 머물러 아쉬움을 남겼다.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위해 수출 및 내수 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 공공부문 개혁, 창조경제 본격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공공부문에 대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선 ‘비정상적 정상화’ 개혁이 최우선 과제라고 언급, 공공기관의 고강도 개혁을 예고했다.

박 대통령은 대북(對北)정책과 관련, 북핵 폐기를 최우선 안보과제로 언급하면서 한반도 통일시대를 위한 준비와 이산가족 상봉의 필요성, 인도적 지원 및 민간교류 확대 등을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 1년 내내 정국을 달구었던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과 소통 정

치 등에 대해선 원칙론으로 일관해 실망감을 자아냈다. 박 대통령은 “특검문제는 현재 재판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이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피력했다.

또 박 대통령은 불통 논란에 대해 “소통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주장이라도 적당히 수용하거나 타협하는 것은 소통이 아니다”며 ‘반론’을 펼쳤다. ‘소통 의지’를 밝히면서도 자신의 입장을 강조하는데 더 ‘방점’을 찍은 듯한 인상을 줌으로써 논란의 여지를 남긴 것이다. 국민대통합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었다는 점도 그 실천 의지가 의문시된다.

물론 한 번의 기자회견으로 불통 논란을 잠재울 수는 없다. 하지만 일방통행식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반대세력과 불통을 하는 것을 정당화해서는 나라를 제대로 이끌기 어렵다. 금년에는 박 대통령이 널리 소통하고, 의견을 구하는 리더십을 보여주길 바란다.

새해 벽두 생활물가 뛰는데 당국은 뭘하나

새해 벽두부터 고베 풀린 망아지처럼 생활물가가 뛰고 있다. 지난해 말 전기료가 인상되더니 해가 바뀌자마자 가스요금도 오르고, 휘발유 값마저 고공행진이다. 여기에 식·음료 값마저 오를 조짐을 보여 가뜩이나 힘겨운 서민들을 더욱 옥죄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따르면 보통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ㄹ 당 2.8원 오른 1886.3원을 기록해 5주 연속 상승했다. 자동차용 경유와 실내용 등유도 지난해 대비 ㄹ 당 각각 2.7원, 0.6원 오른 1705.0원, 1353.5원을 기록했다. 더욱이 국제유가 상승분이 시차를 두고 시장에 반영되면서 석유제품 소비자 가격은 당분간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또, 한국가스공사는 도시가스요금도 평균 5.8% 인상하기로 했다. 주택 난방·취사용이 5.7% 오르면서 동절기 기준으로 월 평균 7만5700원의 가스비를 지출하는 가정의 경우 이제는 8만 원으

로 4300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고 한다. 덩달아 각 기업들이 식·음료 값마저 올릴 태세이다 보니 말 그대로 총체적 인상국면이다.

다가오는 신학기 교육비와 납부해야 할 각종 세금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서민들은 새해 물가인상 러시에 허리가 휘 지경이다. 정부는 물가가 안정 추세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통계 숫자 놀음에 다름이 없다.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물가는 괴리가 커도 너무 크다. 당국의 무감각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물가란 한번 인상의 물꼬가 터지면 걸잡을 수 없게 된다. 자칫 물가 대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물가 인상 러시를 방치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당국은 연밀히 물가동향을 파악, 인상 억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통해 불필요한 인상은 강력하게 막아야 한다. 서민 생활물가는 민심과 직결된다는 점을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無等鼓

전하를 통일한 진시황제는 부하 서시(서북)에게 불사약(不老藥)을 구해 오도록 한다. 이에 서시는 동남동녀(童勇童女) 수백 명과 함께 배를 타고 동쪽으로 떠났지만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

불로장생을 꿈꾸던 진시황제는 50세에 세상을 떠났다. 구레 서시편을 비롯해 금강산, 남해 금산, 제주 정방폭포 등지에 서시의 흔적이 남아있다고 한다.

영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는 인생을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주인공은 일반인과 다른 삶을 산다. 80세 외모를 가진 채로 태어나 아기로 늙어 죽는 것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정신은 점점 노인이 되어 가는데 육체는 점점 어려져 간다.

주인공은 이렇게 말한다. “가치있는 것을 하는데 있어서 늦었다는 건 없다. 하고 싶은 것을 시작하는데 시간의 제약은 없단다.”

진시황제와 벤자민 버튼의 사생관(死生觀)은 대비된다. 누구든지 짧게,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바람이 있을 것이다. 주위에선 얼굴이 좋아졌다고

말하지만 정작 본인은 부쩍 늙수그레해졌다고 반대로 느끼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결국 회춘(回春)이나 장수(長壽)의 기준도 관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를 것이다.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한국 대표팀을 이끈 거스 허딩크 전 감독이 조만간 국내에서 ‘안티 에이징’(Anti Ageing) 수술을 받을 예정이어서 화제다. 관전열 수술을 받은 후 눈 처짐 개선과 복부지방을 줄이는 시술을 받을 예정이라 한다. 요즘 ‘동안(童顏) 열풍’에 비하면 새삼스럽지 않다.

2014년 새해가 밝았다. 흔히들 ‘조금만 젊었더라면~’하는 말을 많이 한다. 하지만 벤자민 버튼의 명대사처럼 어찌 흘러가버린 시간만 탓하라. 지천명(知天命)의 나이가 됐다고 생각하는 50세에 60대 어른은 “한창 좋은 나이”라고 조언한다. 또 80대 어른은 60대에 같은 말을 할 것이다.

‘말의 해’인 새해에는 좀더 ‘젊은 생각’, ‘젊은 마음’으로 살며, 다가오는 시간의 물살을 헤쳐나가야겠다.

/송기동 체육부장 song@kwangju.co.kr

기고

나눌수록 커지는 기쁨



양성관 동강대학교 노인복지학과 교수

며칠 전, 지인들과 함께 장애인복지관에 봉사를 다녀왔다. 2시부터 행사가 계획되어 있어 1시경에 준비실에 들어갔더니 당일 프로그램 출연자들이 미리 와서 연습을 하고 있었다. 무대를 비롯하여 행사장 전체에 100여 개의 촛불을 켜고 함께 마실 차를 준비하여 멋진 분위기를 연출한 모습이 무척 아름답게 보였다. 시간이 되어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 프로그램 하나하나에 공연자와 참석자들이 하나가 되어 웃고 박수치고, 때로는 진지하게 몰두하는 모습들이 너무 행

복했다. 함께한 복지관 가족들은 매 공연이 끝날 때마다 “부라보~, 앵콜~” 등을 외치며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고, 1시간 반 동안 진행된 프로그램에 대해 아쉽다는 반응과 함께 행사는 마무리되었다.

공연이 끝난 후, 대기실에서 준비물 등을 정리하는 출연자들의 얼굴에도 환한 기쁨의 미소가 가득했다. 당일 행사는 재능기부 형식의 봉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준비와 알찬 프로그램, 복지관 담당자들의 헌신적인 협조 등이 어우러져 행사가 참으로 만족스럽게 이루어진 것 같아 출연자 모두가 행복해하며 헤어졌다. 행사의 참여를 수락한 한 달여 전부터 행사를 위해 장소의 사전 답사, 악기 점검, 노래 선곡, 연습 등으로 많은 신경을 썼고, 행사 당일에는 점심 식사도 못하고 행사장 사전준비를 하며 돌느라 피곤하였지만 행사가 끝난 후 돌아가는 나의 마음은 기쁘고 풍요롭기만 했다. 사랑과 기쁨은 나눌수록 커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느끼면서 늦노래를 부를 수

있었다.

우리 주변에는 영유아부터 시작하여 아동, 장애인, 한부모가족, 보호관찰소, 노숙인, 노인 등을 위한 많은 시설과 기관들이 있다. 이러한 시설을 돌아보면 어느 시설들이든 1년 내내 봉사자들이 많이 찾아와서 담당직원들이 봉사자 예약 리스트를 만들어 봉사 계획을 조정하고 있는가 하는 한편, 어느 시설들은 찾아오는 봉사자들이 거의 없어 연초가 되어도 쓸쓸하게 보내는 곳들이 많다. 새해를 맞으면서 외롭고 소외된 이웃을 얼마나 생각할까 사는지 한번쯤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OECD 경제협력국가 34개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매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왜 이렇게 자살률이 높을까? 노인빈곤율도 1위이다. 반면 행복지수는 하위 5개국(한국, 터키, 칠레, 멕시코, 에스토니아)에 해당하며, 정부의 노인복지지출은 꼴찌이고, 아동복지지출도 34개국 가운데 32위이다. 이러한 수치에 나타나 있듯이 우리나라

는 참으로 살기 힘든 나라가 되었다.

우리 국민은 예로부터 정과 사랑이 넘치는 미덕을 갖고 있다. 김장을 하면 이웃에 한 포기씩 담아서 나누어 준다. 보낸 김치 그릇에는 빈 그릇으로 오는 경우가 없다. 김치를 채우면서, 다른 것을 채우던지 받았던 것도 훨씬 더운 넘치는 정으로 그릇은 돌아오곤 했다. 먹고살기 힘들던 시절에도 감나무에 까치밥이라고 해서 까치가 먹을 감 한 개는 꼭 남겨 두는 풍요로운 나눔의 정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지금도 이러한 정이 넘치고 있는지? 내 집은 좀 더 큰 집으로 바꾸고, 내차는 좀 더 큰 차로 바꾸고, 내 가족들과의 식사는 좀 더 좋은 곳에서 하는 등에는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내 주변의 소외된 이웃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나를 위한 지출을 줄여가며, 나보다 못한 이웃을 위해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봉사하는 풍성한 마음을 나누며, 이러한 풍성한 마음이 더욱 커지는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와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8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鎔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경 제 부	2200-663	경영지원본부
<대표 FAX 222-4918>	문화 1부	2200-661	2200-515
편 집 부	2200-649	문화 2부	2200-651
정 치 부	2200-612	여론매체부	2200-621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다 지 인 실
사 회 부	2200-616	사 진 부	2200-693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프로젝트 팀
			2200-555 < F A X 02-773-9331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